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5편)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중심으로-1)

(원문) ALIC 調査情報部 国際調査그룹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1. 머릿말

남미대륙에 위치한 브라질에서는 농업생산이 활발하다. 그 중에서도 닭고기 생산량은 매우 많다.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2019년 생산량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인 1,388만 톤이다. 또 수출물량은 최근 헤알화 약세 진행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배경으로 세계 제1위인 386만 톤으로,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한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한 수급에 대한 영향이나 제품 규격에 대한 대응 등 동국이 가진 우위성이나 과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10월에 실시한 위탁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에 대해 우선 2019년까지의 현황을 제시하고, 이어 2020년 상황을 COVID-19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 미국 달러=105엔=1,087원(2020년 12월 말일 TTS 시세: 104.50엔, 1,856.5원)과 1헤알=19.88엔=209원(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을 사용하였다.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近年におけるブラジルの鶏肉需給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中心として`’,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2. 경제 및 농업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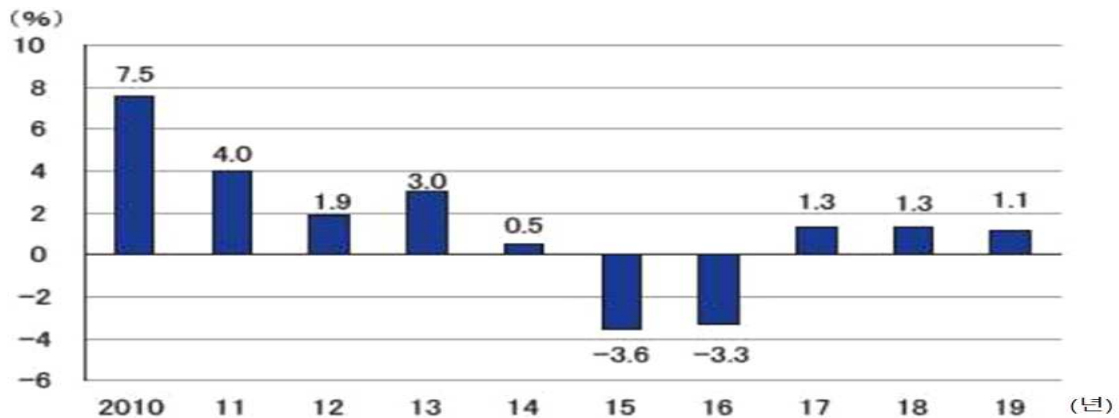
2.1. 경제 개황

브라질 인구는 세계 6위로 2억 명을 넘어섰고, 국토면적은 일본의 22.5배, 한국의 84.5배이며, 국내총생산(GDP달러 기준)은 세계 9위로, 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브라질의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 경기확대기 이후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었으며, 2011~19년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0.7%를 나타냈다. 특히 2015, 2016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경기회복 상황은 아직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2020년에는 COVID-19 확대 영향으로 GDP가 마이너스로 추이하고 있는데,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8%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1).

또한, 1인당 GDP는 2011년의 13,200 달러(137만 9,400엔, 1,434만 8,400원)를 정점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2019년은 8,700 달러(90만 9,150엔, 945만 6,900원)가 되었다.

<그림 1> GDP 성장률 추이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원(IBGE)

2.2. 농업 개황

2019년에는 GDP 대비 농축산업 비중이 4.4%였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축산업은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브라질 농목식량 공급부(MAPA)의 2020년 10월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의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닭고기의 비율은 8.7%로 추정하고 있다.

3. 최근의 닭고기 수급 동향

풍부한 사료 곡물과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브라질의 닭고기 산업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9년 브로일러 사육 마릿수는 14억 6,700만 마리, 연간 처리 마릿수는 58억 500만 마리로, 2010년부터 10년간 각각 18.4%, 16.4% 증가하였다.

3.1. 닭고기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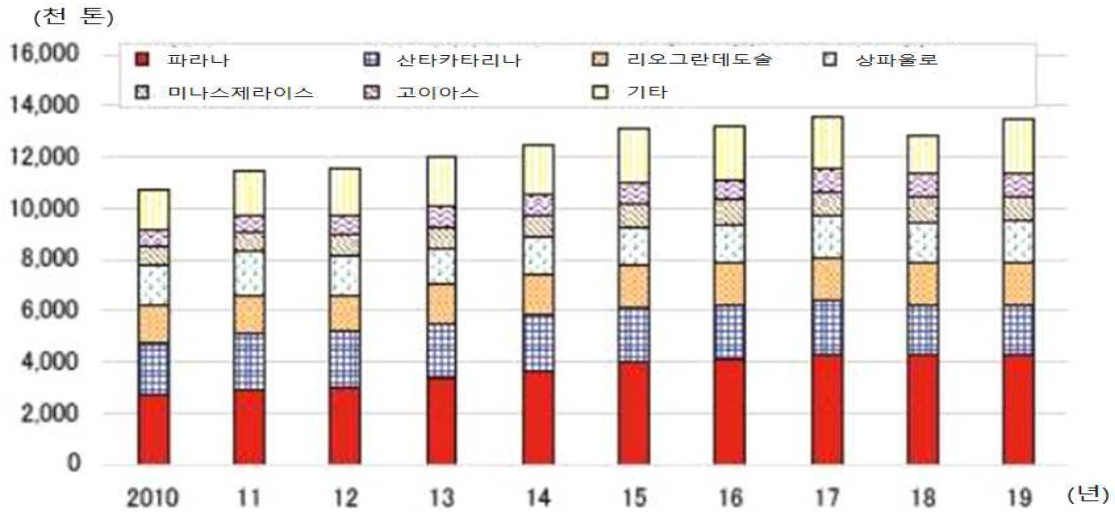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2019년 닭고기 생산량(도체환산)은 1,352만 톤으로,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26.4% 증가하였다. 브라질의 닭은 옥수수과 콩과 같은 사료 곡물의 주산지이기도 한 남부 3주(파라나 주, 산타카타리나 주, 리오그란데도술 주)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파라나 주가 최대 생산지로 전체의 32.0%를 차지하고, 산타카타리나 주(14.3%), 리오그란데도술 주(12.3%)로, 남부 주들이 이어지며, 남부 3개 주를 합쳐 전체의 58.6%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의 주별 생산량을 보면, 파라나 주, 남동부의 미나스제라이스 주, 중서부의 고이아스 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산타카타리나 주는 감소하였다(그림 2, 3).

<그림 2> 브라질의 행정 구분과 지역별 닭고기 생산 점유율(2019년)



자료: IBGE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닭고기 생산량(주별) 추이



닭고기 생산·유통에서는 병아리 공급, 식조(食鳥) 생산, 처리·가공, 유통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 생산·공급을 포함한 강 상류(江上)에서 하류(江下)까지 부문을 수직통합한 체계(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²⁾)가 증가하고 있다. 이 체계는 조합조직에 의해 형성된 것과 민간 팩커(packer³⁾)에 의한 것이 있다. 이 밖에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독립계 생산자가 있다.

3.2.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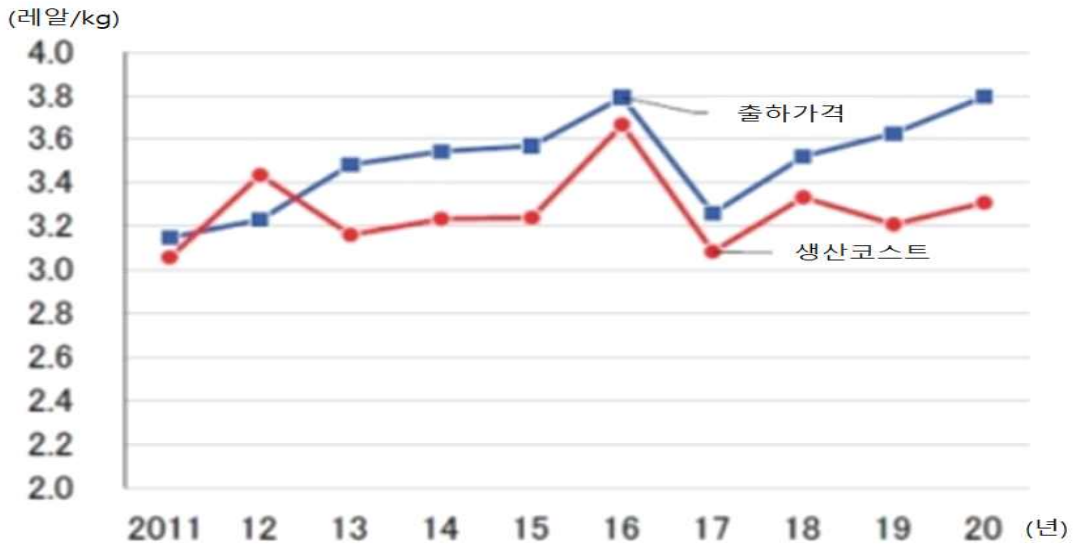
파라나 주 최근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은 2017년 하락 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은 2012년을 제외하고, 생산 코스트⁴⁾를 웃돌고 있다(그림 4).

2)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 수입, 생산, 도매와 소매를 포함하는 유통을 일관해서 한 가지 주체(예를 들면 종합상사, 농협 등)가 계열화하여 다루고,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 그 예로는 브로일러(broiler)로써,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업계에서 생산, 가공, 판매를 통합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를 꾀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 인구, 식량생산, 영양, 건강 등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에도 이용한다. 즉, 체계화의 의미가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1998. 3. 15.,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3) 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 미트팩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체, 커트(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용 등)을 박스드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출처,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4) 여기에서 생산비가 아닌 생산 코스트라고 한 이유는 학술적 개념의 생산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4> 브로일러 출하가격 및 생산 코스트 추이(파라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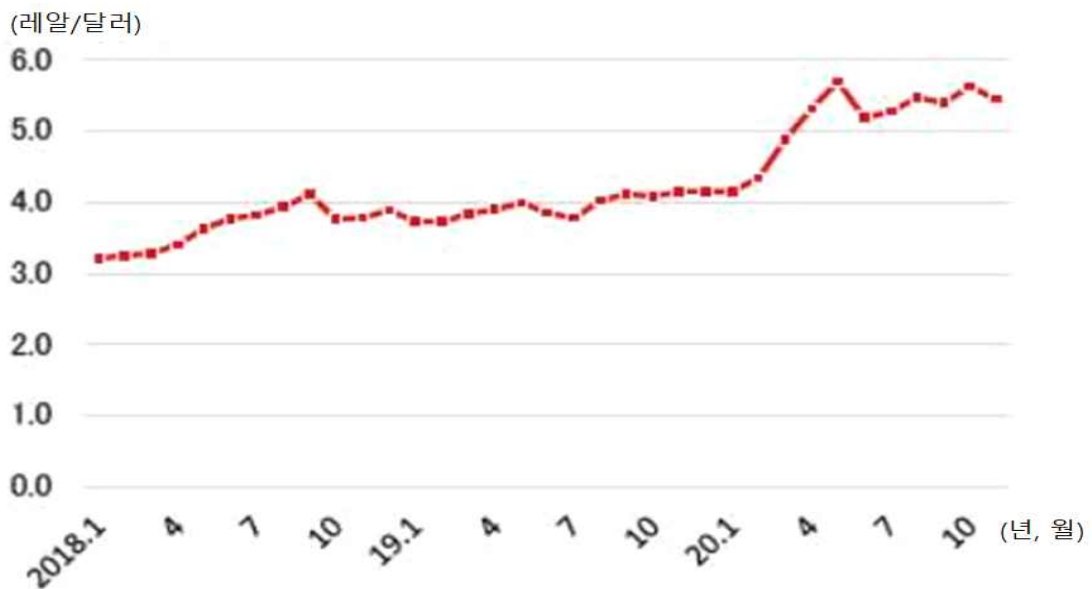


주: 종합물가지수(IGP-DI)를 가지고 2020년 9월 시점에 인플레이션 조정
 자료: EMBRAPA

3.3.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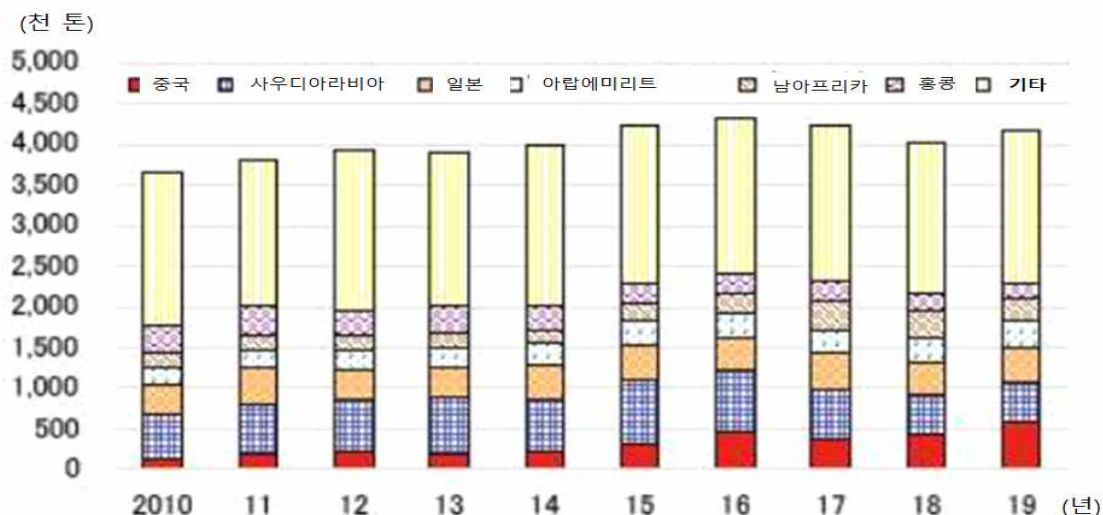
브라질 경제부 무역국(SECEX)에 따르면, 2019년 닭고기 수출량(컷 제품, 통닭, 가공품)은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브라질산 닭고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전년 대비 3.9% 증가한 417만 5,000톤(제품 중량 기준)이었다(그림 5, 6).

<그림 5> 환율 상장(미국 달러에 대한 헤알) 추이



자료: 「Board of Governou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US)

〈그림 6〉 수출지별 닭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HS코드는 닭고기 컷: 0207.13, 0207.14, 통닭: 0207.11, 0207.12, 가공품: 1602.32, 0210.99

2: 제품중량 베이스

자료: SECEX

수출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수반하는 대체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동 34.4% 증가한 59만 톤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2010~19년) 실적을 보면, 2016년까지는 대체로 전년보다 웃돌았으나, 2017년에 발생한 일부 식육가공장의 위생상 육류 부정 문제⁵⁾의 영향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전년 이하로 돌아섰다.

수출지별로는 이슬람권에서 최대 통닭 위주로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년간 13.4% 감소한 47만 3,000톤이었다. 한편 중국 수출용은 이 사이에 5배 가깝게 증가하여 중국으로의 수출 점유율은 3.3%에서 14.3%인 59만 톤이 되어 최대의 수출지가 되었다. 또한 일본으로의 경우, 10년간 11.4% 증가하여 2019년 42만 9,000톤으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하게 되었다.

3.4. 국내가격, 소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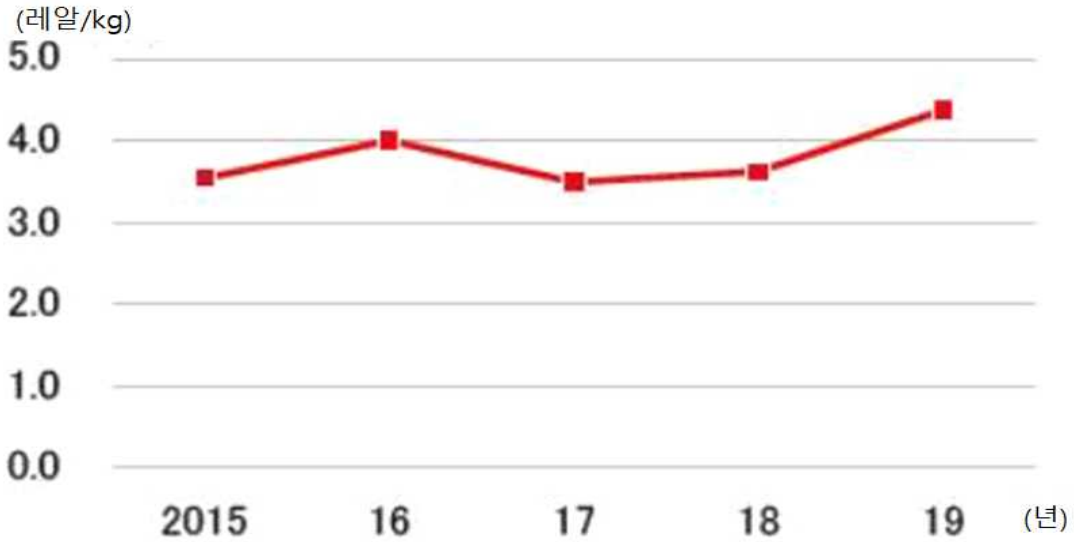
3.4.1. 국내 가격

상파울로 주의 최근 닭고기 도매가격(통닭)은 2017년 하락 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9년은 전년대비 20.7% 상승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그림 7).

5) 식육 부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7年 7月号 「AI未発生国のブラジル産への引き合い強まる」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7/jul/broi-br.htm>)
-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8年 1月号 「ブラジルの鶏肉生産・輸出動向～AIフリーという強みを生かした輸出の優位性と今後の見通し～」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8/jan/wrepo02.htm>)

<그림 7> 닭고기 도매가격(상파울로, 통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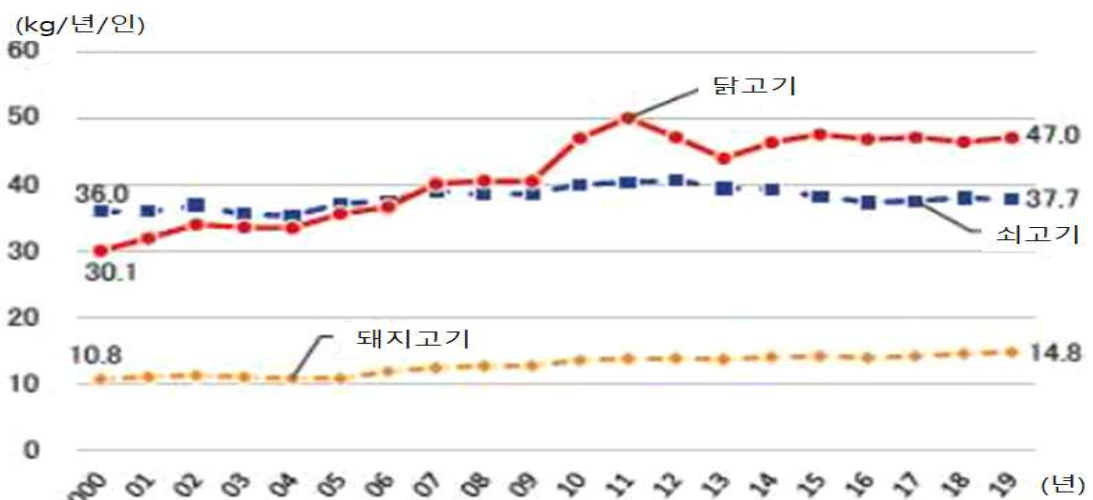


자료: JOX

3.4.2. 소비 동향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중 약 7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닭고기는 싸고 종교적인 제한이 없는 식육으로 널리 소비되는 반면, 최근에는 건강 의식 고조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건강한 식육으로서 소비되고 있다. 2019년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47.0kg으로, 2007년 쇠고기를 넘어선 이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육이다(그림 8).

<그림 8> 식육소비량(연간 1인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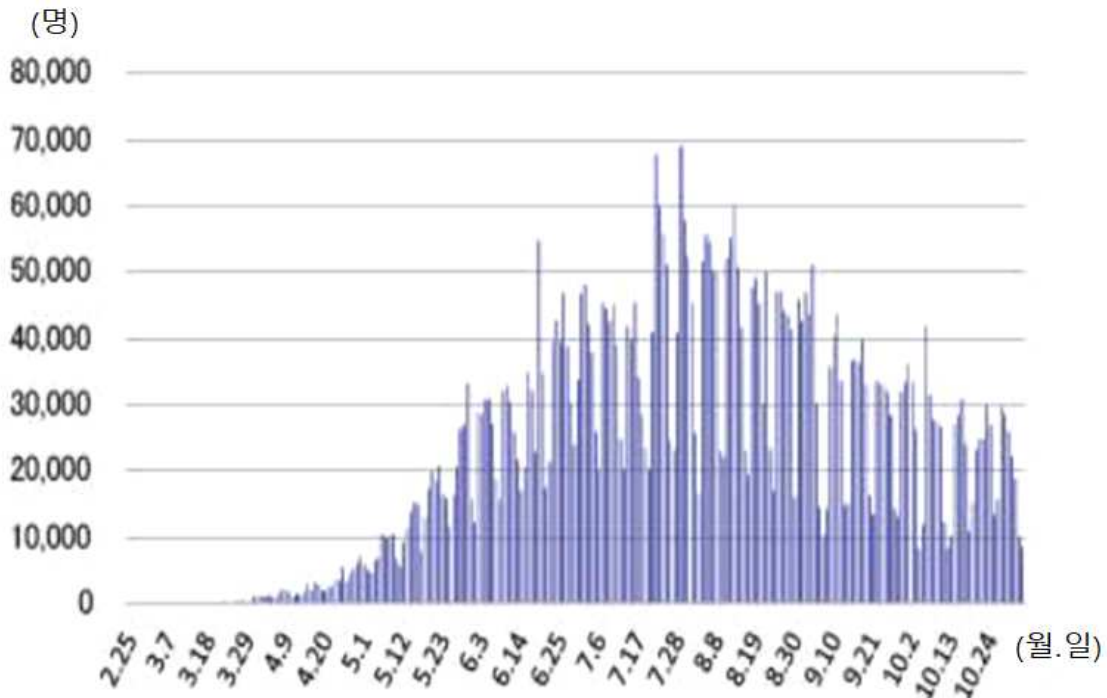
주: 국내 공급량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
 자료: USDA, IBGE

4. COVID-19 발생 후 생산, 소비, 수출 동향

4.1. COVID-19 발생 상황

브라질 보건성 발표에 의하면, 브라질 첫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1개월 정도 늦은 2월말에 발생하였다. 4월이 되자 상파울로 시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어, 겨울을 맞이한 7월말의 1일당 감염자수는 6만 9,000명에 이르렀다. 그 후, 감소 경향에 있지만, 10월말 시점에서 동 감염자수는 1만 9,000명이 되고 있다. 10월말 시점의 누계 감염자수는 554만 명, 사망자수는 16만 명이다(그림 9).

<그림 9> COVID-19 1일당 감염자 수 추이(2020년)



자료: 브라질 보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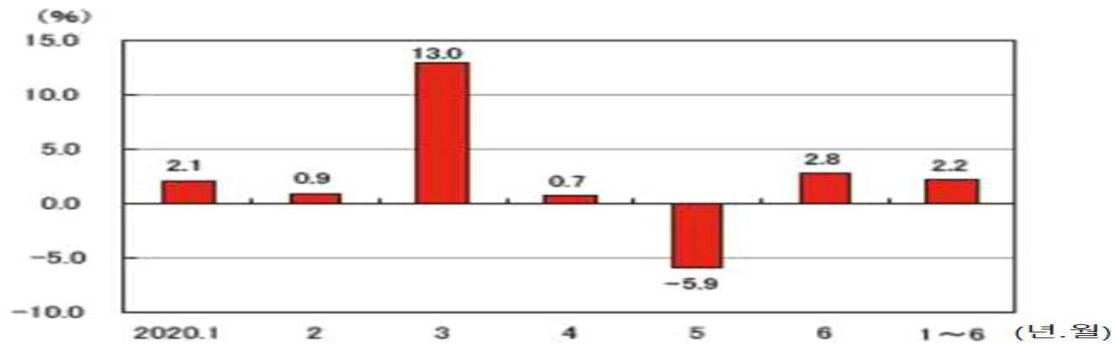
보르소나로 대통령은 COVID-19의 발생 당초부터 경제활동 우선의 입장을 보여 왔는데, 자숙이나 경제활동 제한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중시하는 각 주의 주지사들과 대립하였다. 브라질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주, 시)에 대응을 맡기고 있으며, 각지에서는 자숙, 경제활동 제한 등의 조치가 강구되었다. 상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로 주 등에서는 4-5월에 외출 제한 조치가 강구되었으나, 6월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되었다. 덧붙여 제조업이나 물류, 생활 필수 섹터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이 계속되었다.

4.2. 닭고기 생산 동향

4.2.1. 닭 처리 마릿수, 닭고기 생산 상황

IBGE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닭 도계 처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여 전년 동기를 약간 웃돌았다(그림 10). 5월에는 COVID-19 확대에 의해 시장의 불투명감이 강해졌기 때문에 감산 조치가 취해져 전년 동월을 밑돌았지만, 그 후 회복하여 대폭적인 감소에 이르지 않는 않았다. 또 브라질 닭·병아리생산자 협회(APINCO)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닭고기 생산량은 700만 8,400톤이었다.

〈그림 10〉 닭 처리마릿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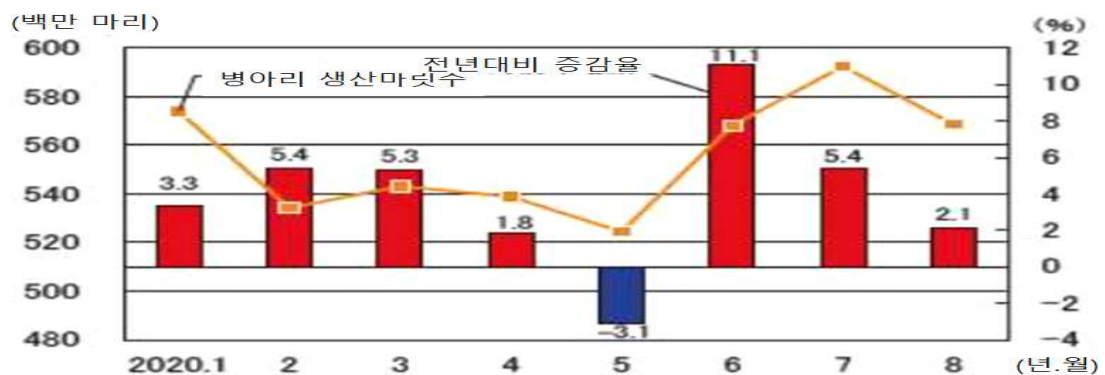


자료: IBGE

현시점에서 생산자의 생산 의욕에 큰 영향은 볼 수 없으나, 종업원의 감염 확대에 의한 일부 패커의 일시적인 조업정지와 중국 정부가 브라질산 제품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수출 인가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그때마다 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Avisite에 의하면, 2020년 1~8월의 브로일러용 병아리 생산마릿수는 6, 7월 급증하여, 과거 4년 평균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1〉 월별 브로일러 병아리 생산마릿수 추이



자료: Avisite

동 협회에서는 사료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마리당 평균 출하중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0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4.2.2. 식조 처리장 등에 대한 영향

브라질의 식조 처리장은 비교적 소규모(일평균 처리마릿수 15~25만 마리 정도)이기 때문에, 처리장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이나 처리마릿수 등의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 대형 패커에서는 한 처리장에서 일시적인 조업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룹 내 다른 처리장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닭이 체류하는 등의 문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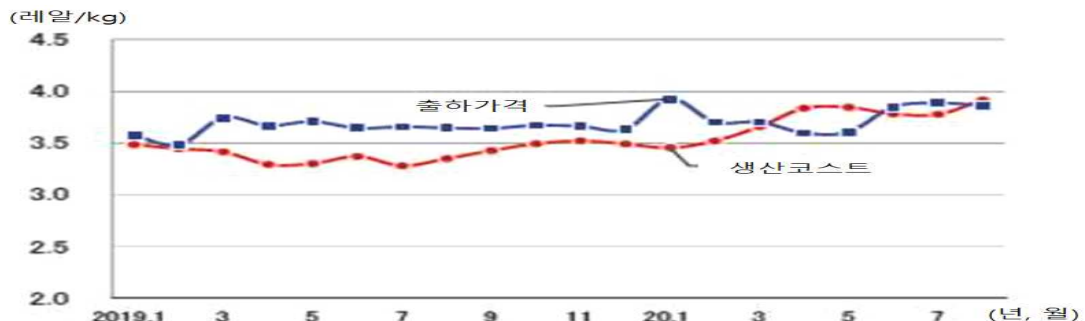
또한 파라나 주에 있는 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식조 처리장에서는 감염방지 대책으로서 작업원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생산성이 떨어졌다. 덧붙여 닭고기 패커의 관심은 ‘코로나 코스트’라고 불리는 감염방지대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였다.

4.3.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

파라나 주의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은 2019년 3월 이후 2020년 1월을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왔으나, 2020년 4~5월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이 부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렸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6월 이후 고가로 추이하고 있다.

한편 생산 코스트는 같은 해 1월 이후 사료 곡물 수출 증가로 국내 사료 곡물 수급이 압박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4월, 5월 및 8월에는 생산 코스트가 생산자 출하 가격을 웃도는 역전 상황이 되어, 생산자에게 있어서 어려운 경영환경이 되었다(그림 12).

<그림 12>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가격 및 생산 코스트 추이(파라나 주)



주: 종합물가지수(IGP-DI)를 가지고 2020년 9월 시점에 인플레이션 조정
자료: EMBRA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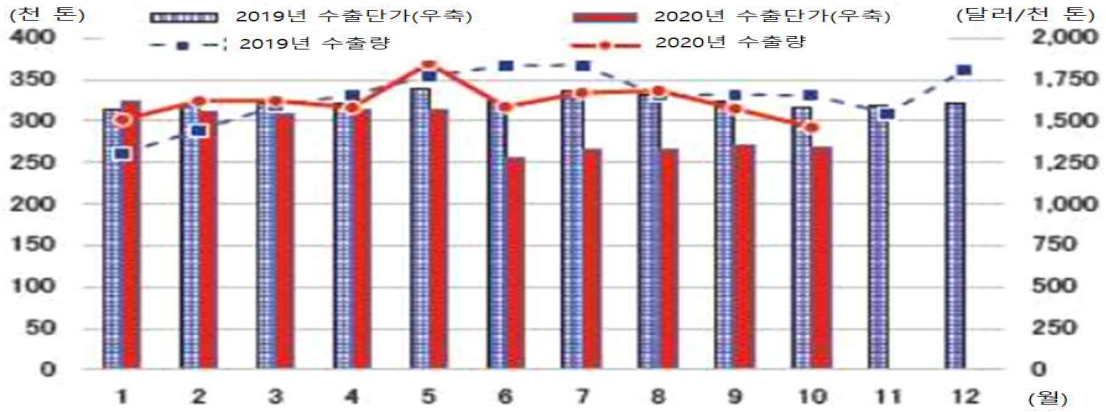
4.4. 수출 동향

2020년 1~10월의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323만 349톤으로 전년 동기를 조금 밑돌았다. 2020년 전반적으로는 전년 동월 실적을 웃도는 적이 많았지만, 그 후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미달인 달이 많아져, 10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1.7% 감소하였다. 연초부터 미국 달러화에 대한 헤알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후에도 미국 달러당 5.5헤알(109.3엔, 1,149.5원) 정도로 수출에 유리한 상황인 반면,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COVID-19 영향으로 중국 수출도 둔화되었다. 이 밖에 주요 수출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에서 COVID-19 영향으로 모스크⁶⁾가 폐쇄되고, 라마단⁷⁾ 이후의 회식이 중단됨에 따른 수요 감소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6) 모스크(mosque). 이슬람교의 예배당. 아랍어의 ‘마스지드’에서 유래하였으며, 에스파냐어의 메스키타와 프랑스어 모스케를 거쳐 영어 ‘모스크’가 되었다. ‘마스지드’는 아랍어로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곳’을 뜻한다. 회랑(回廊)이 있고, 안뜰에는 청정(淸淨: 우즈아)의식을 행하는 샘물이나 우물, 수반(水盤)이 있다. 그리스도교의 교회, 힌두교의 사원이 ‘신의 집’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이슬람교의 모스크는 단지 공동의 기도 의식을 위한 자유 공간을 뜻한다. 어떠한 신상이나 제단을 불허하며 신비한 장면, 종교적 의례도 없다. 모스크는 메디나에 위치했던 무함마드 집의 기도처를 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구조이며, 건축양식에 특별한 방식과 예식도 없다. 건물 내부에는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키블라’가 필요하며, 세속의 일상과 구분 짓기 위한 담이나 현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내부의 주요 구조물은 기도하는 벽면(미흐라브)과 설교사(하티브)를 위한 높은 단(壇: 민바르)이 전부이다. 미흐라브는 기도하는 사람이 메카를 향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벽면으로, 모스크 내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곳이기도 하다. ‘높임’이라는 뜻의 ‘민바르’는 계단이 달린 설교단으로 보통 나무로 되어 있지만 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항상 미흐라브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설교자는 무함마드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민바르의 맨 윗단 한단은 남겨두고 올라 설교한다. 회랑 한쪽에는 1-6개의 침탑(미나레트)이 있으며, 예배시각이 되면 예배당을 지키는 무에진(무아딘)이 탑에 올라가 예배를 권유하는 ‘아잔’을 소리 높여 낭송한다(현재는 확성기가 대신하고 있음). 그러면 교도들은 자리에 앉아 《코란》을 외우면서 예배를 드린다. 무슬림들은 근본적으로 ‘금요일 기도를 위한 모스크’인 자미와 단순히 모스크를 일컫는 마스지드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기 시대에는 쿠트바(설교)를 듣는 모임의 장소로서 자미만이 유지되다가, 점차 수백 명이 모여 기도 의식을 행하는 마스지드로 발전되었다. 다마스쿠스(다메섹)의 우마이야 모스크, 예루살렘의 바위 돔,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등이 대표적인 모스크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7) 라마단(Ramadan).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약 한 달가량의 금식기간으로,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금식을 중단한다.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이슬람력(曆)에서의 9번째 달을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9월을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기고,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단식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금식을 중단한다. 라마단은 약 1400년 전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아라비아반도 서부의 동굴에서 알라로부터 코란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리는 것이다. 이후 헤지라 2년인 서기 623년부터 9번째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이 나타난 다음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이슬람교도의 전통적인 행사가 되었다. 이슬람력은 천문학적 계산과 함께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천문학적 계산보다는 달의 모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라마단 기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국가라고 해서 라마단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각국의 종교위원회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새로운 달을 알리는 초승달이 목격되는 시점을 기해, 라마단의 시작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라마단은 1년이 354일인 이슬람력의 9번째 달 첫날에 시작되므로, 라마단의 기간은 해마다 열흘씩 빨라진다. 라마단 기간에는 관공서와 기업들이 출근시간을 늦추고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그림 13〉 닭고기 수출량 및 수출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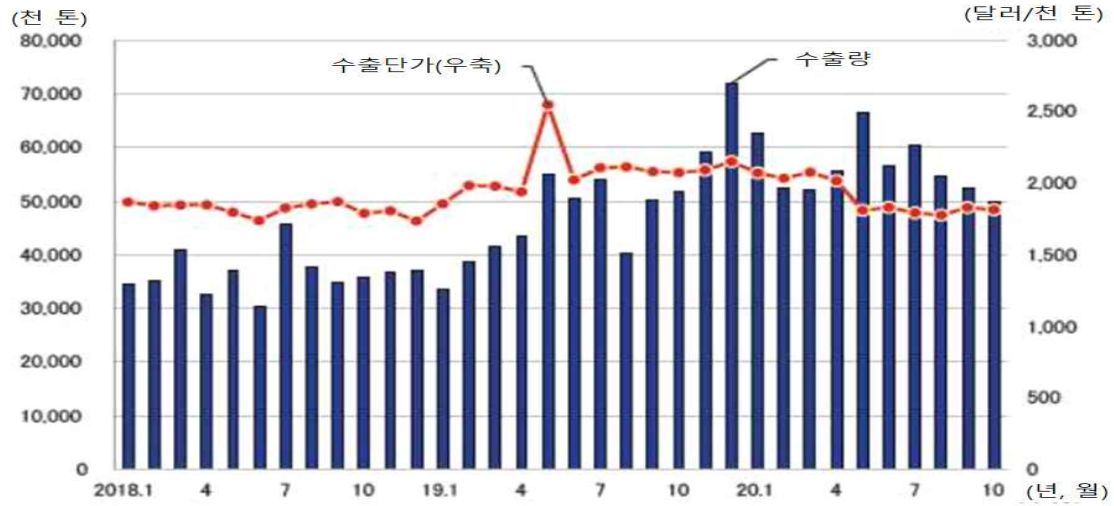
자료: Comex Stat

브라질의 최대 수출지인 중국으로의 수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를 배경으로, 계속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문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2020년 1~10월의 닭고기 수출량은 56만 3,72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하는 등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해 돼지고기 부족이 심각해진 2019년 초부터 돼지고기의 대체수요로써 브라질산 닭고기의 대중국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닭고기 수출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20년 후반에는 2021년 1월의 춘절(春節⁸⁾ 수요를 예상한 판매수량 증가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중국에서 COVID-19가 확대되어,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물류가 막혀 춘절 수요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2020년대 들어 수출 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헤알 하락이 한층 더 가속화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그림 14).

8)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는 춘제(春節, 춘절), 완우제(端午節, 단오절), 중추제(中秋節, 중추절) 등이 있으며, 음력 1월 1일인 춘제나 음력 5월 5일인 완우제처럼 홀수가 중복되는 날이 많다. 이는 양(陽)의 수인 홀수를 숭상하는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기념일로는 라오동제(勞動節, 노동절), 쟌권제(建軍節, 건군절), 귀칭제(國慶節, 국경절) 등이 있다. 이들 기념일은 근현대사의 진행과정, 특히 공산당의 정치적 역정과 관련이 많다. 귀칭제(國慶節, 국경절)는 10월 1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일이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된 이래 반제반봉건의 구호 아래 안으로는 국민당, 밖으로는 일본과 맞서 기나긴 투쟁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당 세력을 타이완으로 패퇴시키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매년 이날에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중,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그림 14> 중국 수출용 닭고기 수출량과 수출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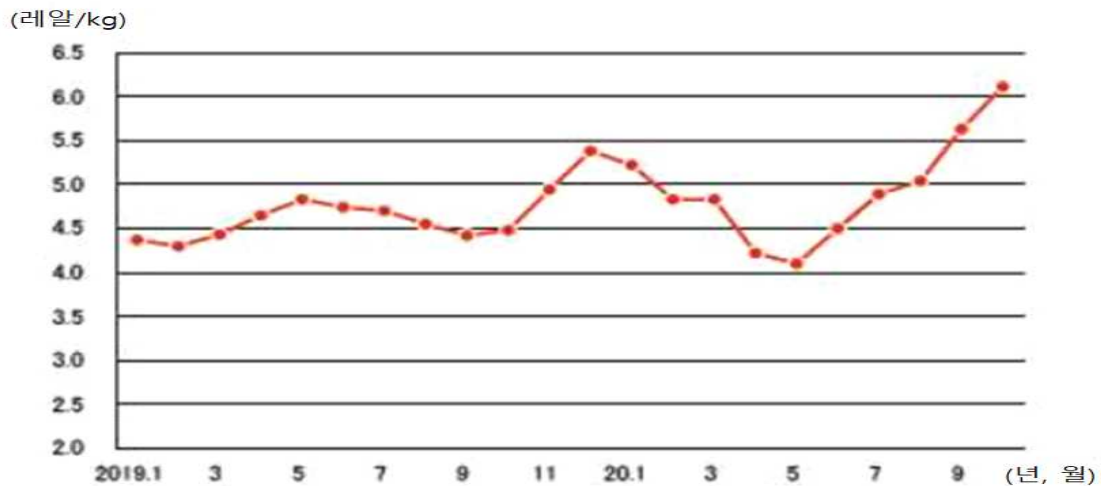
자료: Comex Stat

4.5. 국내 가격, 소비 동향

4.5.1. 국내 가격

브라질에서는 COVID-19에 의한 국내 소비에 대한 영향이나 식조처리장의 일시적인 조업정지에 대한 우려로, 4월경 브로일러용 병아리를 감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6월경부터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저렴한 닭고기로 소비가 옮겨가게 된 결과, 국내 닭 도매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5).

<그림 15> 닭고기 도매가격 추이(상과울로 주, 냉동 통닭)



자료: Cepea

4.5.2.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증가하자 감염방지대책으로 규제조치가 강구된 2020년 3월부터는 브라질에서도 소비자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출 자제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는 11월 현재에도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COVID-19 수습 후에도 상당수의 노동자가 오피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지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당 식사를 기피하는 추세는 계속되었고, 푸드 서비스 업계는 배달비율을 늘리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로 자택에 있다고 해도 모든 식사를 그때그때 만드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된다. 때문인지 브라질에서 말하는 Comida Pronta(만들어 먹는 식품)라 불리는 반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닭고기도 마찬가지이다. 가공품의 종류, 질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상품 개발을 계속하여 국내에 고품질 가공품을 내놓는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COVID-19는 사람들의 건강 의식, 혹은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유기농 채소 수요는 이 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오래전부터 나타났지만, 고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COVID-19 이후 중류층까지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6. 식육 처리장에서의 대책

4.6.1. 식육처리장 폐쇄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 농목방역국 동물제품 검사부(DIPOA/SDA/MAPA)의 월차보고서⁹⁾에 의하면, COVID-19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조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식조처리장수가 7월까지 20개소로 나타났다. 그 중 대부분은 노동공안국(MPT-Ministério Público de Trabalho)이 해당 식조처리장에서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그 결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조업정지 기간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14일 정도인 경우가 많다. 식조처리장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당국 검사관의 확인을 거쳐 재개가 허가된다(표 1).

9) MAPA, Relatório de Atividades do Serviço de Inspeção Federal, 각 호

<표 1> COVID-19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업이 정지된 식조처리장 수

확인 월	식조처리장 수	확인 월	식조처리장 수
2020년 4월	5	2020년 7월	0
5월	10	합계	20
6월	5		

자료: MAPA

4.6.2. 대책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MAPA), 경제부(ME) 및 보건부(MS)는 공동으로 2020년 6월 19일 식육처리장이나 유제품 공장 등에서 COVID-19를 방지, 관리,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COVID-19 대책으로서 식육처리장 등이 취해야 할 70개 항목이 정해져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감염 확인자 등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출근 정지.
- 작업간의 거리는 최저 1미터 이상 확보. 이것이 어려운 경우는 근무시간의 시프트 변경 등의 대책을 실시.
-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추진.
- 공기의 재순환을 피하고 신선한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책.

테레자 크리스티나 농목식량공급부 장관은 “이 명령에 의해 COVID-19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육처리장 종업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상 업무 및 생산의 지속, 나아가 브라질 국내 및 해외용 식료공급을 가능토록 하는 조화를 갖춘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브라질 동물성단백질협회(ABPA)는 COVID-19 만연 초기부터 처리장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과밀을 피하기 위해 공장으로 가는 근로자 출퇴근 버스 증편, 공장 도착 후 체온조절, 손 씻기, 알코올 소독 철저, 마스크, 페이스가드 등 위생용구 지급, 공장 내 작업자 간 거리 유지, 비닐 시트 설치, 컨디션 불량자 자택 대기, 종업원 식당에 판넬 설치 등이 실시되고 있다(사진 1).

<사진 1> 처리공장에서의 COVID-19 대책(ABPA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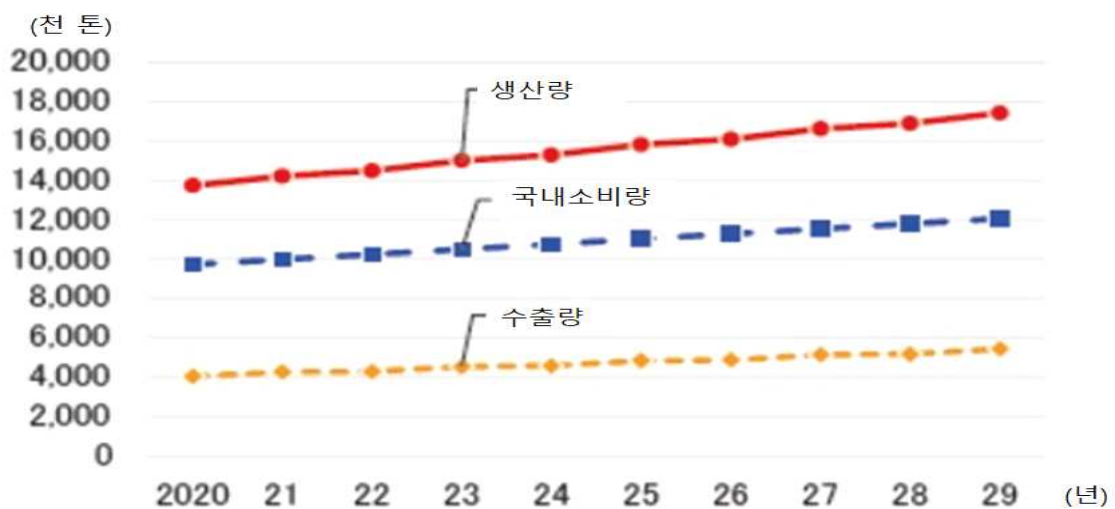


5. 향후 전망

MAPA가 2019년 9월에 공표한 닭고기 수급 전망(2020~29년)에 의하면, 2029년의 닭고기 생산량은 1,744만 톤으로 향후 10년간 26.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6). 또한, 국내 소비량은 2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2010~19년) 생산량은 26.4% 증가하였는데, 향후 10년간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량은 최근 10년간 14.5% 증가한데 비해, 향후 10년간에는 34.6% 증가할 것으로 높은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곡물생산 기후조건 등 닭고기 생산국으로서의 우위를 살리고, 수출지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6> 닭고기 수급 전망



자료: MAPA

6. 과제

지금까지 기술한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 외에 현지 보도 등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리하면, 브라질 닭고기 산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6.1. 생산측면에서의 과제

6.1.1.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강화

닭고기 생산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특히 노동집약적 작업이 요구되는 상품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닭고기의 경우 세세한 수작업 커팅 규격 대응력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또 브라질에서는 사회보험, 연금, 세금 등 회사 부담 부분이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높아, 명목임금이 싸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업 부담이 크다.

6.1.2. 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닭고기 생산 비용의 70% 이상이 사료비용이다. 때문에 사료 곡물 시세 변동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사료 가격의 급격한 변화(상승)에 닭고기 가격이 신속하게 연동될 수 있는지가 양계농가, 닭고기 패커의 경영수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곡물 가격은 날씨와 세계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곡물 재고 확충 등 정책에 따른 시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6.1.3. 정확한 생산조정 실시를 위한 업계 의견 일치의 형성

이번 COVID-19 확대 속에 닭고기 업계에서도 생산조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업계의 과점화가 진행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에 의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단체로서는 정확한 생산조정 실시를 향한 업계 의견 일치 형성이 필요하다.

6.2. 수출측면에서의 과제

수출측면에서는 수출지 요구에 대응한 규격품을 생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 가격 및 품질측면에서 경쟁력을 붙여 가는 것이 과제이다. 정책측면에서는 EU와의 무역협정의 체결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상대편 국가

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관민이 일체가 되어 농산물 수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맺음말

브라질의 닭고기 산업은 세계 우수한 규모를 자랑하며, 국제 시장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풍부한 사료 곡물이나 저렴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사료 곡물 가격 변동 등 시장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과제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닭고기 생산과 소비 동향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국내 닭고기 업계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은 풍부한 사료 곡물과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계속 늘어났다. 또한 국제시장에서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상 기후, 기후변화나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 등 이전의 과제와 함께 특히 중국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기인하는 대량의 동물 단백질 수요나 사료 곡물 수요에 의해 국내외 수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2020년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COVID-19가 닭고기 생산뿐만이 아니라 식생활의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장래 불투명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저비용 생산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한국, 중국, EU, 중동 및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지의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브라질의 닭고기 소비방식

브라질에서는, 테이블 미트로서 이전에는 통닭(그릴러)을 사서 가족이 같이 먹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통닭은 가족 전원이 모일 때 먹는 음식으로서의 수요가 일부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분육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슈퍼마켓 등 식육 판매장에서도 대부분이 부분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백 야드에서 통닭을 커팅하거나 트레이에 패킹하는 가게가 많다(부록-사진 1).

브라질은 닭요리의 종류가 많고 상파울로 주 북부에 위치한 내륙 미나스제라이스 주는 오크라와 함께 토마토 맛으로 조리하는 것과 닭피를 섞어 끓인 것도 있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작은 통닭을 숯불로 굽는 갈레토(Galeto)가 유명하고, 양념은 소금만으로 시원하다.(부록-사진 2).

또한 전국의 바루(선술집)에서는 튀김(Frango Passarinho)이 안주로 정착되어 있다. 모든 절편에 반드시 뼈가 남도록 잘라 마늘을 갈아 튀긴 것으로, 일본의 가라아게(唐揚げ)처럼 튀김옷은 두껍지 않다(부록-사진 3). 또 심장은 슈하스코를 먹을 때 전체로 인기이며, 꼬치에 꽂아 소금만으로 간을 한 뒤 숯불구이로 제공된다. 파달리아(빵집)는 대부분 주말마다 대형 그릴을 내놓고 통닭구이(Frango Assado)를 굽는다. 또한 쇠고기 대신 닭가슴살을 사용한 치킨 스트로가노프(Strogonoff de frango)가 있어, 어린이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가공품으로는 저렴한 치킨 소시지(부록-사진 4)가 저렴한 핫도그나 가정식 재료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얇게 썰어 토마토 소스로 푹 삶은 것을 호텔 조식의 단골 메뉴로 꼽는다. 그 밖에 최근에는 너겟이나 햄버그(부록-사진 5), 양념품 등이 증가하고 있다.

〈부록-사진〉 닭고기 매장과 요리의 예(좌측부터 사진 1~사진 5)				
닭고기 판매코너	갈레토	튀김	치킨 소시지	햄버그
				

<부록 2> 닭고기 수출 전망(ABPA)

브라질 닭고기·돼지고기·계란업계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성단백질협회(ABPA)의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Ricardo Santin 씨(사진)는 2020년 8월 닭고기 수출 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이슬람 국가 대상

이슬람 제국은 수출이 약간 정체되어 있지만, 지금도 브라질 닭고기의 최대 시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책으로서 닭고기 수요의 60%를 국산, 40%를 수입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 생산비용을 고려하면 브라질산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중국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자국의 돼지고기 생산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2025년경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 식육에 대한 의존은 그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우려되고 있지만, 세계 14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7%이다.

(3) 신규 수출 시장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

(4) 국내 가격

국내 가격 상승의 이유는 사료 곡물 가격 상승과 COVID-19의 안전 대책 비용 등으로 생산 코스트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출 중시에 의해 브라질 국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적당하지 않다.

(5) 부가가치 제품 수출

현재 브라질은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출로 연간 약 85억 달러(8,883억 엔)의 외화 수입을 얻고 있다. 이를 사료 효율을 고려하여 곡물량으로 환산하면, 고작해야 19억 달러(1,986억 엔)의 교역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즉, 식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곡물에 큰 부가가치를 붙여 수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절단품이나 가열 가공품의 개발 등, 한층 더 부가가치를 붙인 상품의 개발·수출이 중요하다.

또한 오랜 과제인 국내 논리적 개선이나 브라질 특유의 각종 세금이나 세제 개혁도 중요한 과제이다.

<부록-사진6> Ricardo Santin ABPA 이사장



참고문헌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近年におけるブラジルの鶏肉需給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中心として～’,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7年 7月号 「AI未発生国のブラジル産への引き合い強まる」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7/jul/broi-br.htm>)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8年 1月号 「ブラジルの鶏肉生産・輸出動向～AIフリーという強みを生かした輸出の優位性と今後の見通し～」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8/jan/wrepo02.htm>)

IBGE, 「Presquisa Trimestral do Abate de Animals」

US, 「Board of Governou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US)

MAPA, Relatório de Atividades do Serviço de Inspeção Federal, 각 호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1998. 3. 15.,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Avisite

브라질지리통계원(IBGE)

Cepea

Comex Stat

브라질 보건부

EMBRAPA

MAPA

SECEX

USDA